

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무죄 뒤집고 중형

광주고법 항소심서 아버지 무기징역-딸 20년 선고

“진술 일치해 신빙성 인정”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부녀의 잘못 자백 반복과 증거능력 부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백모(61)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피해자도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살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백씨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오랜 성폭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 최모(당시 59세)씨에게 건네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술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순천시 황전면 공공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으며 이 가운데 정모씨는 최씨와 함께 술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백씨 부녀는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무유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지난 2009년 7월6일 순천시 용암마을 주민 4명 중 2명이 청산가리가 함유된 막걸리를 마시고 술진 사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미궁에 빠졌으며, 같은 해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술진 최씨의 남편인 백씨와 딸을 살인범으로 구속했다. 이후 백씨 부녀가 진술을 번복하고 청산가리 및 막걸리 구입처가 불분명해 논란이 계속됐다.



빙판길 대비 모래주머니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10일 겨울철 빙판길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도로(27개 노선 180곳) 곳곳에 비치하기 위해 아적장에서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빠, 전화 주세요” 주의보

'낙시문자' 사기 23억 쟁전 3명 입건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인폰팅을 통해 수십억원을 쟁전 060 음성정보서비스 제공 6개 업체

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경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서울과 대구, 경기 지역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 상담원과 문자메시지

발송 및 ARS 장비를 갖춘 뒤 25만 50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일반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 남성들을 유인한 뒤 30초당 700원의 정액이용료를 부과했다. 또 전화를 걸려온 남성들에게 인근에 사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만남을 가장하거나 '오빠 수잔이예요, 전화주세요' 등 지인을 가장한 '낙시문자'를 대량 발송, 통

화로 연결되면 '무료 이용은 1번'이라는 ARS 음성메시지를 통해 060 전화로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료 안내멘트를 삭제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1회 통화 시 통화 시간에 따라 700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를 쟁취했다”며 “사무실이나 집에서 근무하는 여성 상담원에게 통화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교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기자 chadol@

꿈속의 저주

14년전 살해한 택시기사 꿈에 나타나 공소시효 1년 남기고 살인범 셋 델미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14년간 도피행각을 벌여 공소시효를 1년 남게 놓았지만, 피해자가 꿈에 나타나 악몽에 시달리던 살인범이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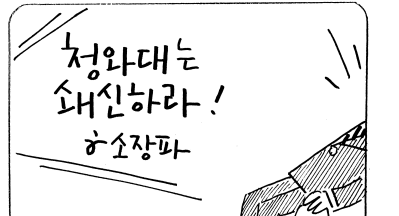
전주 완산경찰은 10일 택시기사를 물어 빠르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 선루배 사이인 이들은 박모(34·구속)씨와 함께 지난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경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심소 선명면 오원천에서 김씨를 물어 빠뜨려 의사시

켰고, 택시는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8일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간 수사했지만 미제로 영인될 뻔하는 듯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살해 후 매일 악몽에 시달려왔던 김씨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으며, 그는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 냈고, 이 지인은 화사동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동료는 살인사건의 전모를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 등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 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박씨는 2008년 금은방 도둑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니원침 (8436) 김종두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 목포서 수험생 0점 처리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치러진 2012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수험생은 고사장인 목포고에서 2교시 시험을 치른 뒤 휴식 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만큼 안타깝지만 시험 전체를 0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penfoot@

2000원 카드결제하러다 주먹질

○음식값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러다 오류가 발생하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식당 여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안모(34)씨는 지난 9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금호동 한 식당에서 추가로 시킨 누룽지값 2000원을 카드로 계산하러다 2차례 오류 때문에 처리가 안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 김모(여·43)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안씨는 자신을 밀리는 식당 주방장 황모(46)씨와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하철 지봉서 자해소동

40대 남성 용산차량기지

지하철 지봉에 올라가 낮을 들고 고압선 절단 시도와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됐다.

11일 오후 3시 30분경 광주 동구 용산동 용산차량 기지의 지하철 지봉역 남성이 낮을 들고 올라갔다.

이 남성은 지하철 철로 한가운데 서서 점검을 위해 시속 20km 속도로 운행 중이던 차량 운영을 막고 측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 지하철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이 남성은 고압선을 잡고 흔들며 낮으로 자신의 배를 긁고 천장의 쇠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는 전력을 차단한 후 남성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 설득을 시도했으나 그가 “병원에서 도망 나왔다. 내 아들을 주겠다”고 횡설수설하며 자해행위를 계속했다. 경찰은 남성이 들고 있던 낮을 향해 40mm다목적발사기(고무탄)을 발사해 흉기를 떨어뜨렸고 4m 높이의 차량 지붕에 올라가 제압됐다. 이 남성은 앞서 이날 낮 12시에 남구 봉선동의 한 과출소에 찾아가 소동을 피우 경찰에 의해 동구 용산동의 한 행린리 보호시설에 인계됐으나 이곳을 나와 지하철차량기지에서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구비 1억 횡령 대학교수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0일 거대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빼돌린 광주지역 모 대학교 H(51) 교수와 서울지역 IT업체 대표(42)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 54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업체 대표와 짜고 물품구매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료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H교수는 또 같은 기간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100만원 상당을 불법 수령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1타경 10151	1	목포시 용암동 970-426 108㎡	대	38,271,63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임차인 있음
2011타경 9888	1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9 필출연립주택 (제외의 건물포함, 임차인 있음)	대	35,000,000	임차인, 유치권인 있음
2011타경 9908	1	목포시 옥암동 974-4 478.3㎡ [박진우지분대]	대	287,957,991	지분매각
2011타경 2389	1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732-1 403㎡	대	3,707,600	대
2011타경 2716	2	신안군 압해면 장천리 1258-4 231㎡ [공유]	전	1,38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1타경 4347	2	신안군 압해면 신창리 1117-4 1983㎡	전	33,914,88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1타경 6978	1	무안군 일로읍 월평리 189-6 238㎡	대	23,800,000	매각외 건물존재함
2011타경 8554	2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2-4 1160㎡ [전영석 지분(36분의8)]	전	15,210,2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1타경 8882	1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2-4 1160㎡ [전영석 지분(36분의8)]	전	15,210,2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1타경 9113	2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2-4 1160㎡ [전영석 지분(36분의8)]	전	15,210,2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1타경 9304	1	무안군 일로읍 월평리 189-6 238㎡	대	23,800,000	매각외 건물존재함
2011타경 9564	1	무안군 일로읍 월평리 189-6 238㎡	대	23,800,000	매각외 건물존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1타경 9625	1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 26975㎡	임야	20,501,000	일괄매각
2011타경 9908	1	무안군 정계면 도림리 408-23 887㎡	임야	13,997,600	일괄매각, 공유자
2011타경 10076	1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861-2 992㎡ [최선순]	대	19,8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1타경 10359	1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942-1 1920㎡	대	14,032,000	일괄매각, 농지취
2011타경 10410	1	무안군 양운면 옥서리 137-2 184㎡	대	11,040,000	매각외 건물존재함
2011타경 10649	1	목포시 산정동 1040-196 53㎡	대	16,430,000	매각외 건물존재함
2011타경 10786	1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633 1025㎡	잡종지	18,425,500	일괄매각
2011타경 11512	1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633 1025㎡	잡종지	18,425,500	일괄매각
2011타경 9434	1	목포시 산정동 1080-152 증원빌라 1층 1	근린시설	36,000,000	임차인있음
2011타경 9434	2	목포시 산정동 1080-152 증원빌라 1층 103호 47.2	근린시설	47,000,000	임차인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1타경 8219	1	신안군 압해면 분대리 693-1 1983㎡ [공유]	염전	4,336,000	지분매각

● 고압선 부동상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대매각조건

● 낙시문자 사기 23억 쟁전 3명 입건

○음식값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러다 오류가 발생하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식당 여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안모(34)씨는 지난 9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금호동 한 식당에서 추가로 시킨 누룽지값 2000원을 카드로 계산하러다 2차례 오류 때문에 처리가 안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 김모(여·43)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안씨는 자신을 밀리는 식당 주방장 황모(46)씨와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